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3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강산 좋은 경을~, 공명을 해아리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 되
나요?

이번 지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및 태도와 관련된 문제
2.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3. 공통점이 있는 다른 작품을 <보기>로 제시하고 지문의 작품들과 연
관 지어 묻는 문제
4. 작품과 관련된 글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은 감상 내
용을 찾는 문제 등



그렇다면 각각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 화
자의 태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아.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볼까?

(가) 이현보의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는 화자가 ‘아니 가고 어쩔
고’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
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해.



넵. 그런데 ‘귀거래’가 뭔가요? 말이 너무 어려운
데요.

‘귀거래’는 ‘돌아가리라’라는 의미로, **관직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감**을 뜻
해. 중국의 시인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야. 도연명이 지은 시
인 「귀거래사」가 <보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해 두자!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을~」은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 **속세에서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자연’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연 속에서는 마음껏 노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도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해 두자.



(가)와 (나)의 시조 모두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맞아. 이제 설명할 (다)도 자연과 관련된 시조인데, 이렇게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향,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 등을 드러내는 시가의 부류를 ‘강호가도’라고 해.

작자 미상의 「공명을 헤아리니~」는 조금 생소하지?

이 작품은 (가), (나)와 달리 **중장이 긴 것**을 보니 **사설시조**임을 알 수 있어. 벼슬에서 물러난,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대부가 전원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그리고 **전원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도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해 두자.



잘 기억할 수 있겠니?



음...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3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강산 좋은 경을~, 공명을 헤아리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가)

【귀거래(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말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을 뜻함.)* 귀거래(귀향의 소망을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말뿐이오 같 이 없어(귀향의 소망이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냄.)】([]: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 당시 관리의 이중적 속성을 언급함.)

▶초장: 귀거래를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세태

전원이 장무(將蕪)* 하니(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향이 황폐해질 것을 염려함.) 아니 가고 어쩔고(고향의 눈과 발이 거칠어지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당위성을 강조함. / 설의적 표현. 화자의 의지적 태도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장: 전원으로 돌아갈 때에 대한 인식

초당(작은 집.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에 청풍명월(맑은 바람과 맑은 달빛)이 나명 들명(초가집에 자연이 들며 나며 함. / 의인화) 기다리나니(자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 /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는 마음이 드러남.)

▶종장: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감

- 이현보

* 귀거래 : 돌아가리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

*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나)

< 강산 좋은 경(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힘이 센(권력자)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와 다투다고 치면(상황의 가정). / 자연은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초장: 자연 경관에 대한 상황의 가정

【내 힘과 내 분(‘힘센 이’, ‘내 힘과 내 분’이 대조를 이룸.)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설의적 표현. 표현상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찌 자연을 얻을 수 있겠는가? / ‘나’는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함.) >(< >: 욕망을 지니고 서로 다투는 세속적 세계를 은근하게 비판함.)

▶중장: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

【진실로 금할 이(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존재)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진실로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마음 놓고 즐기며 노닐 수 있음. / 속세에서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자연 속에서는 마음껏 노닐 수 있음. / 자연의 세계는 누구나 누릴 수 있음. / 자연에서의 흥취를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위화감을 해소하려 함.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종장: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식

- 김천택

(다)

【공명(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을 헤아리니 영옥(영예와 치욕)이 반이로다】([]: 공을 세워 이름을 알리면 영예롭기도 하지만 치욕적이기도 함을 지적함. 공명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드러남.)

▶초장: 공명의 영예로움과 욕됨

[동문에 꽤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해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
외에 얻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스스로 옴.) 아지 못
게라 천양지간(천지시간. 하늘과 땅 사이)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설의적 표현)]([]: 벼슬에서 물러난
화자가 전원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 유유자적(悠悠自適)의 태도.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화자
의 태도와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장: 전원생활에서의 유유자적함.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음.)하여 승화귀진*
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전원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남. **화자가 지향하는 바와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장: 자연에 몸을 맡긴 삶에 대한 만족감
- 작자 미상

- * 꽤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 *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골.
- *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 * 얻긴: 싹이 길게 자란.
-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 *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가) 이현보,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핵심 정리

- 갈래: 평시조
- 성격: 의지적
- 주제: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
- 특징
 -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남.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를 강조함.
 - 벼슬과 권력에 집착하는 이들의 이중성을 지적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가 귀향하여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본받아 지은 시조이다.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

(나) 김천택, 「강산 좋은 경을~」

핵심 정리

- 갈래: 평시조
- 성격: 강호한정가, 비판적
- 주제: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
- 특징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즐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함.

- 가정법, 설의법을 통해 서로 다투는 세속적 세계를 은근하게 비판하는 태도가 나타남.
- 자연이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대상임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작가의 심정이 반영된 시조이다. 작가는 신분적 제약으로 입신양명이 좌절되자 삶에 갈등을 느끼고 은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 작자 미상, 「공명을 헤아리니~」

핵심 정리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강호한정가
- 주제: 전원생활에 대한 지향
- 특징
 -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은 사대부의 유유자적한 삶이 드러남.
 - 공명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드러남.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세속적 공명의 헛됨을 드러내며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사설시조이다. 작가는 전원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삶의 마지막까지 자연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3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강산 좋은 경을~, 공명을 헤아리니~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 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나니

- 이현보

* 귀거래 : 돌아가리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자
은 시의 한 구절

*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나)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진실로 금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천택

(다)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
고 뒷외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
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
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
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
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쾌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
골.

*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 엄긴: 싹이 길게 자란.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의인화를 통해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
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
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
개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2. <보기 2>를 참고할 때, (가)와 <보기 1>의 화자가
나눌 만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강호(江湖)에 기약(期約)을 두고 십 년을 분
주하니

그 모른 백구(白鷗)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성은(聖恩)이 지중하시매* 갇고 가려 하노라

- 정구

<보기 2>

사대부들에게 나아감[出]과 물러남[處]은 매
우 중요한 문제였다. 시운(時運)이 허락하면 나
아가 임금을 보필하는 관료로서의 소임을 다하
였으나, 그러한 나아감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
거나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여길 경우에는 향
촌(鄉村)으로 돌아가 성리학적 수양에 주력하
며 음풍농월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 ① <보기 1>: 오래 전부터 '강호'로 돌아가 음풍농
월하는 삶을 기다렸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
습니다.

- ② (가): 많은 이들이 당신처럼 '귀거래'를 이야기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이들은 드문 듯합니다.
- ③ <보기 1>: 물러남도 중요하지만 관직을 수행하며 '성은'을 갚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 ④ (가): 하지만 '전원이 장무'하다는 이유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대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⑤ <보기 1>: 저 역시 이곳에서의 소임이 끝나면 물러나 '백구'를 벗 삼으며 수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 ③ A: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대단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선생님의 시에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네요.
- ④ B: 전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슬쩍 풍자하고 싶었거든요.
- ⑤ A: 초야에 묻힌 조출한 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은근한 자부심이 잘 느껴지네요.

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일정한 운율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나)는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임의 부재 상황을 창작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적 배경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

4. (나)의 화자(A)와 <보기>의 화자(B)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맵다는가 박주(薄酒)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시니 맵고 쓴 줄 몰내라.

- 이정신

- ① A: 선생님, 선생님의 시를 읽어 보니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 듯하네요.
- ② B: 선생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의 시에도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5.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자! 벼슬에서 물러나 내 집의 논밭으로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하고 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 이미 내가 잘못하여 스스로 벼슬살이를 했고 따라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괴롭혔거늘 어찌 혼자 한탄하고 슬퍼만 해야 하겠는가? 지난 일은 공연히 탓해야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또한 앞으로 바른 길을 좇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노라. 사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기는 했으나 아직은 그리 멀리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성하여 바른 길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살이가 잘못이었음도 깊이 깨달았노라.

- 도연명, 「귀거래사」

- ① (가)에 비해 <보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에 비해 (가)에는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보기>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가)와 <보기> 모두 벼슬살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가)에 비해 <보기>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타협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6. (다)의 종장에 담긴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삶에 대한 달관과 체념
- ②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
- ③ 세속적 가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
- ④ 전원생활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만족감
- ⑤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삶에 대한 초월적 기대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 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나니

- 이현보

* 귀거래 : 돌아가리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자
은 시의 한 구절

*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나)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어 얻을쏘니
진실로 금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천택

(다)

공명을 해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
고 뒷외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
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
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
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
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괘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
골.

*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 엄긴: 싹이 길게 자란.

-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 *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설명할 때, 적절
한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시가에 등장하는 자연적 소재는 다
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아일체가 된 친
화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정치 현실과
대비되어 청정무구한 세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유학자들에게 자연은 추구해야 하는 윤리
도덕적 덕목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자
연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사용되
었다.

- ① (가)의 '전원'은 화자와 물아일체를 이룬 친화의
대상이다.
- ② (가)의 '귀거래(歸墟來)'는 권세를 버리고 고향
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한다.
- ③ (나)의 '힘센 이'는 유학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윤리 도덕을 상징하고 있다.
- ④ (나)의 '금할 이'는 화자가 함께 지내고자 하는
친화의 대상이다.
- ⑤ (다)의 화자는 '공명'을 얻기 위해 유유자적하며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② 현재와 달랐던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며 해결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토로하
고 있다.
- ⑤ 우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9. (나)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강호(江湖)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어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홀룡한 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
 으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
 려만,
 두세 이랑 밭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싹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가
 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
 아오랴.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겼으리
 빈이 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여기로
 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
 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
 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 한 이
 누구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매로 살겠노라.
 - 박인로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의 형식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0. (나)와 <보기>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書劍(서검)을 못 일우고 쓸씩 업쓴 몸이 되야
 五十春光(오십춘광)을 한몸 업써 지늬언저
 두어라 언의 곳 靑山(청산)이야 날 쉴 쏘이 잇
 시랴.
 - 김천택

- ① 토지를 소유하려는 세태
- ② 법의 제재로 거주지가 한정됨
- ③ 부귀·권력 추구의 사회
- ④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소작료 다툼
- ⑤ 세속을 정신적으로 초월하려는 도교의 성행

11.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약자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세나 돈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 있다.
- ④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을 즐기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2. (다)에 나타난 ‘승화귀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인간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한다.
- ②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을 마감한다.
- ③ 늙어서도 태평성대를 누리며 오래 산다.
- ④ 죽음으로써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 ⑤ 숭고한 죽음을 통해 영원한 명예를 얻는다.

- *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골.
- *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 * 엄긴: 싹이 길게 자란.
-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 *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 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나니

- 이현보

* 귀거래 : 돌아가리라.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지은 시의 한 구절

* 장무: 바야흐로 거칠어져 감.

(나)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
진실로 금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천택

(다)

공명을 헤아리니 영옥이 반이로다

[A] 동문에 궤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뒀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궤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13. (가)의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속세를 떠나 전원생활을 즐기려 한다.
- ② 현실의 문제를 초월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
- ③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개탄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을 은근히 비하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가)에서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리나니’에서 ‘청풍명월’ 즉 자연의 의인화를 통해 자연이 화자를 품으려 한다는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는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와 같이 시어의 반복은 나타나고 있지만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에서도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도 ‘언을쏘니’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다)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다) 모두 촉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⑤

<보기 1>의 화자는 ‘백구’가 자신이 ‘더디 온다’고 하겠지만 자신은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갚고 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자신의 소임이 끝나면 물러나 ‘백구’를 벗 삼으며 수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 1>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십 년을 바쁘게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화자는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오 갈 이 없어’라고 하며 ‘귀거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돌아가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 1>의 화자는 ‘성은이 지중하시매 갓고 가려 하노라’라며 임금님에 대한 은혜가 지극히 무거우니 그것을 갚고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화자는 ‘전원이 장무’하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①

(가)는 시조로서 3·4조 또는 4·4조 4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의 반복을 통해 현실 정치에 집착하는 사대부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색채어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와 (다)는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다)는 모두 강호 시가로, 임의 부재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다)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적 배경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정답] ③

(나)의 중장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본인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진실로 금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 노라’를 통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⑤ <보기>의 화자는 ‘매미’, ‘쓰르라미’와 상반된 시적 화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속세에 대한 은근한 풍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③

(가)는 겉으로는 ‘귀거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현실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청풍명월이 기다리는 자연의 세계로 귀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며,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괴롭히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는 전원의 삶을 지향하고 <보기>에서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보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 자기반성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벼슬살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타협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④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는 구절은 전원생활을 통해 평생토록 즐거움을 누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근심 없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확신과 만족감을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① 달관과 체념보다는 전원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과 만족감을 드러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연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세속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은 초장에서 드러나지만, 종장에서는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주된 정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삶에 대한 초월적 기대보다는 자연 속에서 평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②

‘귀거래’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전원’은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화자와 물아일체를 이룬 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힘센 이’는 권력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유학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윤리 도덕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금할 이’는 (나)의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함께 지내고자 하는 친화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공명’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 유유자적하면서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8. [정답] ④

(가)의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

① 직접적인 대화의 기법을 확인할 수 없다.

② 현재와 달랐던 과거의 상황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뒤에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인 선경후정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우의적 표현은 다른 사물과 사례에 빗대어 정서를 돌려 표현하는 것인데, (가)에서는 자신의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의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9. [정답] ⑤

(나)에는 ‘얻을쏘니’, <보기>에서는 ‘말라 하랴.’, ‘나아오랴.’, ‘삼겼으리’, ‘누구 있으리.’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는 ‘푸른’ 등의 색채어가 사용되었으나 (나)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는 ‘명월청풍’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동화된 상태를 보여 주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는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등과 같이 대구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나)에서는 대구의 형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나)와 <보기>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현실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10. [정답] ③

(나)에서는 ‘강산 좋은 경을 힘센 이 다룰 양이면 /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쏘니’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신분이 낮아 권력과 힘이 없는 처지를 인식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두어라 언의 곳 靑山(靑山)이야 날 쥔 쏘이 잇시랴.’를 통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하고 명예나 부귀도 얻지 못한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당

시 사회의 모습은 부귀·권력 추구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① (나)와 <보기>에서 토지를 소유하려는 세태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나)와 <보기>에서 법의 제재로 거주지가 한정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나)와 <보기>에서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소작료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나)와 <보기>에서 도교의 성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11. 정답 ①

화자는 초장, 중장에서 강산이 험센 이들의 차지가 될 것이면 자신은 강산을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이 권력과 힘이 없는 약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 노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나)의 화자가 명예나 부귀를 얻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권세나 돈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에서 자연을 즐기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정답 ②

‘승화귀진’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을 마감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니므로 적절하다.

- ① 운명 개척과는 반대되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승화귀진’은 삶의 마감을 자연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늙어서도 태평성대를 누리며 오래 산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 ④ 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죽음으로써 벗어난다는 것보다는 자연 순응이라는 의미가 더 핵심적인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영원한 명예 획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①

(가)의 화자는 관직을 그만두고 전원을 즐기고자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의 화자가 현실의 문제를 초월한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화자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개탄하며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화자가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화자는 타인의 삶을 은근히 비하하며 자신의 선택한 삶의 방식을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